

연구논문

주거환경에서의 여성고령자의 일상생활행위에 관한 연구

김경일 · 안옥희
영남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The Study on the activity of daily life of the elderly
women in housing environments

Kim, Kyoung il · An, Ok hee
Dept. of Home Management, Yeungnam Univ.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basic data which can be used as comfortable dwelling circumstance to keep a life as self-reliant and secure as possible for their activity daily life in the elderly housing.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can be found that the elderly complain many difficulties when they do their activity daily life in the interior housing space. See the aspect of space, improvement of architectural arrangements like stairs, lighting arrangements, bathroom, kitchen are required and in the characteristic of elderly, we can found the effect of health condition, education in activity daily life.

Key Words : Activity daily life, The interior housing environments, Elderly women

I. 서 론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와 의학기술의 발달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평균수명의 연장은 1995년의 5.7%에서 2000년에는 7.1%로 유엔기준 7.0%를 넘어서 2015년에는 본격적인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부부중심의 핵가족화 현상은 고령자 단독가구의 증가율(도시; 50%, 농촌; 80%)이 고령인구의 증가율을 앞지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김대년, 1998), 고령자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에 있다.

더욱이 고령자가 되면 생물학적 노화로 인하여 신체의 제 기능이 저하되고 사회적 관계가 가족 중심으로 축소되며 가족생활주기상의 가족축소기와

정년에 따른 은퇴기의 연장으로 일반인들보다 주로 자신의 주택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므로 노후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된다. 특히 단독가구 상태로 생활하는 고령자에게 미치는 주거환경의 영향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의 신체기능저하에도 적절히 대응가능하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물리적인 장애물을 제거한 주택과 주거환경정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고령자의 경제력 증가, 주거생활에 대한 욕구 및 젊은 세대의 고령자에 대한 부양의식의 변화로 기존의 자녀 부양에 의존하던 고령자들 스스로도 점차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욕구를 지니게 되었으나(최성재, 1992b), 도시주택의 부족현상과 주거의 고층·집단화 현상으로 전통적인 주거에서의 생활방식을 크게 변모시켜 도시 고령자의 일

상생활에 있어서 많은 물리적 장애와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있다. 즉 정상인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도 적응능력이 낮은 고령자들에게는 무리한 일(John Macsai, 1982)이 되기도 하며 또한 고령자들은 그들의 제 기능과 육체적인 능력을 점차 상실함에 따라 일상생활활동의 타인 의존도가 심화되며 흔히 발병되는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건강상태의 악화는 어느 시점에서 고령자 스스로의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한다.

한국인구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1991)에 의하면 79%의 고령자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앞으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주택·주거환경의 대한 점진적인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김태일, 1998). 그리고 남재락의 연구(1983)에서 우리나라 고령자의 일상생활의 패턴을 조사한 결과 여자 고령자의 경우, TV보기 20.7%, 낮잠자기 27.6%로 나타나 대부분의 시간을 주거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행동범위가 좁아 실내 주거환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주거환경은 어떤 형태이건 인간의 행위, 즉 작은 단위의 행위인 동작(molecular behavior)에서 활동(activity)을 거쳐 생활양식 등과 같은 총체적 행위(molar behavior)까지를 모두 수용하고 이들 행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보조해 주어야 한다. 이에 주거환경이 행위를 보조해 주고 있는가 하는 진단 및 평가는 우선 환경내에서 어떤 행위가 진전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기술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이연숙 외, 199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생활을 중심으로 고령자의 주거환경내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행위 및 기거행위와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건을 비교, 분석하여 고령자들의 일상생활행위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부적응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일상생활의 동작행위를 하기에 편리한 고령자를 위한 주거환경 계획의 기

초적인 자료를 얻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II.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 등을 참조하여 작성한 면담용 설문지를 이용하여 1997년 10월 29일~11월 15일에 실시하였다. 조사는 연구자와 2명의 면접원이 함께 피조사자를 직접 호별방문 또는 노인정, 경로당을 방문하여 직접면접하는 직접면접법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단독고령자가구의 가사전담 여성 고령자 200명이다.

본 연구에서 단독가구의 여성 고령자를 선정하 이유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어, 주생활의 주체로 생활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며, 주거공간 사용범위가 더 넓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고령자 단독가구란 고령자 혼자서, 노부부, 미혼자녀 및 손자녀와 동거하는 고령자 65세 이상의 여성 고령자 가구를 말하며, 가사전담 여성 고령자란 가사를 전담하면서 가사 보조자가 없는 여성 고령자를 말한다.

면담용 설문지의 구체적인 구성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주거내 일상생활행위, 제변인에 따른 일상생활행위, 가사수행정도, 고령자의 기거행위, 만족도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주거내 일상생활행위에 대한 설문문의 문항은 Golant(1984), Johnson(1989), Barrow(1992)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측정척도를 토대로 우리나라 고령자에게 적용시켜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 28가지 문항을 선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가 5점의 Likert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내었다. 이에 대한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alpha = .9116$ 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 및 분석은 SPSS 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 ANOVA 등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Ⅲ. 조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 200명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 보면 < 표 1 > 과 같다.

< 표 1 >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 인	내 용	N (%)
연 령 (세)	65세~69세	66 (33.0)
	70세~74세	55 (27.5)
	75세~79세	37 (18.5)
	80세 이상	42 (21.0)
	M	73.1
자녀 수 (명)	0명	3 (1.5)
	1명	7 (3.5)
	2명	19 (9.5)
	3명	35 (17.5)
	4명	48 (24.0)
M	4.9	
현재 동거 가족 수 (명)	0명	51 (25.6)
	1명	76 (38.2)
	2명	26 (13.1)
	3명	19 (9.5)
	4명	10 (5.0)
M	2.6	
동거인 (인)	단독노인	43 (21.5)
	노인부부	62 (31.0)
	미혼자녀 또는 손자녀와의 동거	95 (47.5)
교육 정도	문맹	77 (38.5)
	무학(한글 또는 한자해독)	50 (25.0)
	초등학교 졸업	51 (25.5)
	중학교 졸업이상	22 (11.0)
건강상태	힘든 편	112 (56.0)
	양호한 편	88 (44.0)
건 강 관 리 법	식사 주의	7 (3.5)
	산책	44 (22.2)
	조깅	16 (8.1)
	충분한 휴식	21 (10.6)
	가벼운 팔·다리운동	55 (27.8)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46 (23.2)
	기타	9 (4.5)
고령자의 바람직한 가족유형	혼자서	23 (11.5)
	노부부	45 (22.5)
	미혼자녀와 함께	12 (6.0)
	결혼한 아들부부와 함께	88 (44.0)
	결혼한 딸부부와 함께	0 (0.0)
노인 전용시설	32 (16.0)	

연령은 65세~69세가 33.0%로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은 73.1세로 나타나 후기 고령자에 해당된다. 자녀 수는 5명 이상이 44%로 가장 많고, 평균 4.9명으로 대체적으로 자녀 수가 많은 편이며, 동거 가족 수는 평균 2.6명으로 나타났다.

동거형태는 '미혼자녀 및 손자녀와 동거' 47.5%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여성의 취업활동의 증가로 인하여 탁아문제를 고령자에게 맡기므로써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일면으로 '고령자와 손자녀 동거'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구성형태가 증가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학력의 경우 문맹이 38.5%, 무학이 25.0%로 나타나 고령자 대상의 조사연구는 자기기입식 질문지법보다는 면접조사법을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자가 판정한 주관적 건강평가는 전체 56.0%가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하였으며, 건강 관리법으로는 '가벼운 팔·다리운동'(27.8%),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23.2%)가 대부분은 건강관리를 위해 스포츠나 특별한 건강관리를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 중 44%가 바람직한 가족유형으로 장남과의 동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은정 외의 연구(1996)에서 고령자의 82.0%가 결혼한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것과 대한주택공사(1987), 박하전의 연구(1985) 결과에서 현재 기혼자녀와 살고 있는 3대 동거 가족 고령자의 66% 이상은 장남가족과 동거하고 있다는 결과와 유사하나 조재순 외의 조사(1995)에서는 고령자가 되면 결혼한 자녀가족과 별거 하면서 자신만의 독립된 주거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것과 상반되므로 노년기 가족에 대한 연구는 보다 폭넓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주택특성

전체 주택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가 21.3%로 현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이 아주 뒤떨어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최재성(1992a)의 연구에서 고령자들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구조에 대한 만족 비율이 21.9%밖에 되지 않는 것과 일치한다.

즉 단독 고령자는 주거면적에 대한 제약과 주거내 설비면에서의 문제점과 더불어 고령자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의 저하는 일상생활행위의 제약을 가져오게 되어 주거내에서의 많은 부적응을 초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주택특성에 대하여 자세히 보면 < 표 2 > ,

< 표 2 > 주택 특성

변 인	내 용	N (%)
주택의 입지조건	도심지	135 (69.2)
	도시근교의 전원	60 (30.8)
소유형태	자가	104 (52.0)
	타가	96 (48.0)
주택 유형	단독주택	123 (63.1)
	공동주택	77 (36.9)
거주 년 수 (년)	5년 이하	110 (55.0)
	5년 이상	90 (45.0)
	M	9.9
주택 평수 (평)	20평 이하	79 (39.5)
	21~30평	46 (23.0)
	31~40평	31 (15.5)
	40~50평	15 (7.5)
	50평 이상	29 (14.5)
M	27.4	
전체 방의 수 (개)	1개	29 (14.9)
	2개	60 (30.9)
	3개	73 (37.6)
	4개	17 (8.8)
	5개 이상	15 (7.7)
사용하는 방의 수 (개)	1개	120 (61.9)
	2개	43 (22.2)
	3개	24 (12.4)
	4개	7 (3.5)
난방종류	연탄온돌	5 (2.6)
	연탄보일러	16 (8.0)
	기름보일러	153 (76.5)
	가스보일러	18 (9.0)
욕실	있다	116 (60.4)
욕실의 형태 (욕조와 변기관계)	공동형	118 (88.7)
	벽으로 분리	13 (9.8)
	커튼으로 분리	2 (1.5)
화장실의 형태	양변기	110 (56.7)
	좌변기	49 (25.3)
	재래식	35 (18.0)
부엌의 형태	독립형	113 (57.9)
	식당겸용	50 (25.6)
	식당, 거실겸용	32 (16.4)
거실 유무	있다	112 (58.0)
정원·마당 유무	있다	72 (36.9)

주택의 입지조건은 본 연구의 조사가 대구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심지'가 69.2%로 가장 많았다. 주택의 소유형태는 '자가'가 52.0%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의 유형은 '단독주택'이 63.1%로 많았는데 오찬욱의 연구(1993)에서 중년층의 희망주택유형은 성별, 연령, 직업, 학업에 관계없이 단독주택이며, 김대년의 연구(1998) 결과, 자가(66.4%), 단독주택(68.5%)이 가장 많은 것과 일치하여 고령자의 경우 자기소유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의 거주지에서의 거주 년 수는 5년 이하가 55.0%로 나타나 반 이상이 지금의 거주지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추측할 수 있으나, 21년 이상인 경우도 14.5%를 나타내어 평균 거주 년 수는 9.9년으로 비교적 길었다.

주택의 평수는 평균 27.4평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방 수는 3개 이상인 경우가 54.1%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인 주거규모 24.4평, 방 수 3.1개 (평균 가구원수 3.3명)와 비교(통계청, 1995)하고 본 연구의 평균 가족 수 (2.6명)를 고려할 때 주택의 크기는 양호한 것으로 사료된다. 사용하는 방 수는 1개가 61.9%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주거내부설비환경에 대해 보면 난방종류는 기름보일러 사용(76.5%)이 가장 많았으며, 화장실의 형태는 '양변기' 사용이 56.7%로 가장 많았으나 '재래식'도 18.0%나 되었는데 이는 신체기능의 저하에 따른 하지 근력의 무리와 더불어 고령자 주거내 화장실 설비의 필요성을 시사함을 알 수 있었다.

욕실은 고령자의 생리적 기능의 저하 및 관절계통의 감퇴로 인한 거동이 점점 불편해지므로 공중목욕탕 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반드시 주거 내에 있어야 하는 공간이나 60.4%만 욕실을 소유하고 있었다. 욕실의 형태는 '욕조, 변기 공동형'이 가장 많은 형태(88.7%)이었다.

부엌의 형태는 '독립형'이 57.9%로 절반이 넘으나, 이는 신체기능의 저하에 따라 음식을 만든 후 나르기 쉽도록 부엌과 식사공간이 인접해야 함을 시사한다.

거실은 58.0%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정원 혹은 마당은 36.9%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이와 같이 주택특성은 부엌, 화장실, 욕실 등의 설비 면에서 고령자의 신체기능저하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여 생활하기에 불합리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현재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고령자가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계획이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한다.

2. 고령자의 주거내 일상생활행위

주택 내에서 행해지는 28가지 일상생활행위의 어려운 점을 5점 Likert식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행위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 결과, 평균 3.0점을 나타내어 보통으로 나타났다(표 3). 이는 본 연구대상자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자로 일반고령자보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8가지 일상생활행위 중 평균 이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항 중 고령자의 생리적 특성 및 주택계획설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어려움이 있다' 3.6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으며,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아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응답을 하였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한참을 쉬었다가 올라간다'고 답하고 있어 고령자의 신체에 부담이 됨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행위 중 가장 힘들어 하는 행위인 '계단 오르내리기'는 인간활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보행행동 중 하나이며 이는 계단이라는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이므로 계단시설에 대한 건축학적 배려가 절실히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독서' (3.4점), '재봉이나 바느질' (3.3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자가 되면 20대에 비해 3배 이상의 밝기가 요구될 정도(안옥희 외, 1998)로 시력의 급격한 감퇴를 보이므로, 조명설비에 있어서 일반조명기준보다 좀 더 밝은 것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고학력 고령자의 증가에 따른 독서를 위한 조명설비에 대한 배려도 고려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목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3.3점)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자용 욕실은 욕실안에서의 미끄럼의 사고와 여유공간의 확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정에서는 많은 부적응이 초래됨을 알 수 있으므로 욕실내의 안전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해 준다.

또한 세탁관련행위인 다림질(3.2점), 세탁(3.2점) 행위나 음식만들기(3.2점), 빨래 말리기(3.1점) 행위는 여성고령자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익숙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고령자가 됨에 따라 순환기능의 저하에서 오는 생리적 부담으로 추측되며, 고령자에게 있어서 가사설비기기 사용에 대한 부적응에서 초래되는 에너지 소비라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 주거환경내의 계단, 조명설비, 욕실, 부엌 등의 건축 설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면 고령자의 일상생활행위의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제변인에 따른 일상생활행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택특성의 제요인에 따른 일상생활행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되는 건강상태, 교육정도, 동거인, 주택의 입지조건, 주택의 유형, 소유형태, 거주년수, 전체 방의 수, 화장실의 형태 등에 따른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용 유의차가 인정된 건강상태 ($p < .001$), 교육정도($p < .001$), 부엌유형($p < .01$)에 대해서 고찰하기로 한다(표 3).

1) 건강상태에 따른 일상생활행위

건강상태에 따른 일상생활행위를 보면 당연히 건강하지 않는 집단이 건강한 집단보다 대부분의 일상생활행위에 있어서 불편해하고 있었다($p < .001$). 이가옥 외의 조사(1995)에 의하면 만성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고령자는 72.2%이며, 여자 고령자(80.6%)가 남자 고령자(59.4%)보다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특히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보면, 식사하기, 탈의 등의 6개 동작 중

〈 표 3 〉 주거공간 내에서의 고령자의 일상생활행위

변 인	전 체		건강상태 힘든편/양호한편		교육정도 문맹/무학/초등학교/중학교이상				부업유형 단독형/거실식당		
	M	SD	M	F	M		F	M	F		
계단 오르내리기	3.6	1.0	3.86 3.23	11.447***	4.08/ 3.42/ 3.45/ 3.68 a b b				4.333**	3.77 3.63	.693
독서	3.4	1.1	4.61 3.54	8.202**	5.73/ 4.04/ 3.06/ 3.23 a b				22.256***	4.77 3.80	9.145**
재봉이나 바느질	3.3	1.0	3.51 3.25	1.662	3.64/ 3.40/ 3.29/ 3.27				1.034	3.52 3.36	.886
간단한 운동	3.3	1.0	4.03 3.60	1.556	5.06/ 3.50/ 3.27/ 2.41 a b				18.141***	4.14 3.64	2.937
목욕	3.3	1.1	3.58 2.60	24.465***	3.62/ 3.32/ 3.14/ 2.91 a b				2.671*	3.60 3.01	11.377**
혼자서 손자녀 돌보기	3.2	1.0	4.24 4.19	.020	4.47/ 4.58/ 3.39/ 4.55 a a b a				2.962*	4.15 4.33	.292
시장 보기	3.2	1.1	3.43 2.98	3.967*	3.57/ 3.36/ 2.88/ 3.36 a b				2.688*	3.50 3.09	4.338*
혼자서 친인척 집 방문	3.2	1.0	3.31 3.02	2.165	3.52/ 3.24/ 3.34/ 2.05 a a a b				10.210***	3.36 3.08	2.806
세탁	3.2	1.0	3.39 3.42	.008	3.55/ 3.16/ 3.47/ 3.27				.766	3.42 3.37	.071
다림질	3.2	.9	3.32 2.94	4.424*	3.65/ 3.00/ 3.02/ 2.73 a b b b				7.297***	3.42 2.97	8.984**
음식 만들기	3.2	1.0	3.37 2.98	3.460	3.56/ 3.32/ 3.04/ 2.73 a b b b				3.355*	3.41 3.10	2.827
빨래	3.1	.9	3.57 2.88	7.232**	3.91/ 3.10/ 3.04/ 3.14 a b b b				4.620**	3.57 3.18	2.925
이부자리 정리	3.0	1.0	3.30 2.48	15.769***	3.31/ 3.08/ 3.18/ 2.23 a a a b				4.333***	3.25 2.91	3.464
집안청소	2.9	.9	3.20 2.73	4.932*	3.48/ 2.88/ 2.86/ 2.73 a b b b				3.990**	3.20 2.94	1.979
물건 수납	2.9	.8	3.15 2.75	4.465*	3.29/ 2.90/ 2.96/ 2.82				1.760	3.20 2.86	4.354*
상 차리기	2.9	.9	3.30 2.69	6.627*	3.14/ 3.36/ 2.88/ 3.36				1.069	3.24 3.05	.854
화장실 가기	2.9	.9	3.18 2.60	6.424*	3.19/ 2.96/ 2.84/ 3.18				.775	3.21 2.83	3.760
설거지	2.8	.9	3.11 2.63	5.182*	3.12/ 3.06/ 2.90/ 2.64				.904	3.08 2.89	1.093
전화걸기	2.8	1.1	3.13 2.67	3.275	3.45/ 2.84/ 2.49/ 3.09				4.537**	3.22 2.75	4.757*
화초나 채소 기르기	2.8	.9	3.56 3.50	.027	4.09/ 3.74/ 2.88/ 2.73 a b				4.529**	3.57 3.52	.025
식사하기	2.7	.9	2.91 2.44	5.520*	2.75/ 2.98/ 2.61/ 3.00				.986	3.02 2.52	8.300**
친구 만나기	2.7	.9	2.84 2.65	.883	2.97/ 2.76/ 2.86/ 2.09 a a a b				2.948*	2.95 2.60	3.821
탈의	2.6	1.0	2.80 2.38	4.965*	2.87/ 2.80/ 2.53/ 2.23				2.335	2.94 2.38	12.200**
몸단장	2.6	.8	2.79 2.69	.225	3.10/ 2.70/ 2.53/ 2.27 a b				3.551*	2.86 2.64	1.353
게임	2.6	.9	2.63 2.81	1.012	2.96/ 2.54/ 2.63/ 2.05 a a a b				4.437**	2.78 2.53	2.442
TV시청	2.5	1.0	2.76 2.17	8.769**	2.94/ 2.86/ 2.12/ 2.09 a a b b				13.775***	2.90 2.24	15.317***
잠자기	2.5	.9	2.76 2.40	3.282	2.42/ 3.24/ 2.61/ 2.45 a b a a				5.247**	2.85 2.45	5.331*
가족담소	2.5	.9	2.64 2.71	.085	2.92/ 2.70/ 2.39/ 2.23 a b				2.115	2.69 2.61	.153**
전 체	3.0	1.0	3.30 2.89	7.906**	3.51/ 3.18/ 2.91/ 2.80 a b b				7.026***	3.34 3.01	7.121**

※ 서로 다른 문자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1개 이상의 동작에 어려움을 느끼는 여자 고령자(31.0%)가 남자 고령자(20.0%)보다 높았다.

특히 본 연구결과 유의차가 크게 나타난($p < .001$)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계단 오르내리기』의 경우, 고령자는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 경우 보행시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동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보다는 미끄러져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고령자는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수록 균형감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욕실·화장실내 「보행시의 바닥부분」, 그리고 「욕조내에서 앉거나 일어설 때」의 동작에 있어서 많은 불편이 따른다(김태일, 1998)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용 욕실은 건강상태에 따라 휠체어와 같은 보조기의 사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차미란(1984)과 고성룡(1990)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바닥마감은 미끄럽지 않고, 난방장치 및 욕실과 화장실에 쉽게 누를 수 있는 비상벨의 체계화 등 안전시설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 및 여윌 공간의 확보가 공간설계시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침실에서 이불을 빼고 넣는 작업은 김태일의 연구(1998)에서 수납공간을 개조하고자 하는 비율이 많았으며 Lawton(1975)은 고령자에게 충분한 수납공간의 확보가 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고령자의 신체상의 변화 및 생리적 저하의 배려가 고려되지 않아서 공간구조와 부적응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동작에 있어서 건강상태에 따라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와 휠체어나 지팡이 등의 보조기기 사용이 증가할 것이지만, 이에 대응하기에는 현재의 주택은 상당히 어려운 공간구조로 되어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건강상태에 따라 특히 계단, 욕실, 수납공간의 계획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디자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교육정도

교육 수준과 일상생활행위에 따른 관계를 보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전체적인 일상생활 행위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김애련 외의 연구(1997)에서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집안 일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은 교양활동, 취미활동, 청취활동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대년의 연구(1998)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엌의 설비가 매우 취약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음식만들기』, 『빨래 널고걸기』, 『다림질』, 『이부자리정리』, 『집안청소』등 가사활동을 하는데 힘들어 하는 것은 신체상의 저하와 동시에 설비상의 열악함에서 오는 부적응 때문으로 사료된다.

『전화걸기』, 『TV시청하기』, 『독서』, 『간단한 운동하기』, 『게임하기』, 『친인척방문』등과 같은 행위시 교육수준이 다소 높을수록 활동을 즐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손자녀 돌보기』는 본 조사자의 특성상 '손자녀와의 동거'가 47.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과 동시에 권규식의 연구(1973)에 의하면 고령자들의 42.8%가 집안에서 손자녀와 노는 것이 가장 즐겁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손자녀 돌보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이는 3세대 동거에서 보는 전통적인 가족유대관계가 아닌 주부의 취업활동의 증가와 고령자들이 자녀들의 필요에 따라 손자녀의 양육에 매우 적극적으로 책임을 수행하는 대리부모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교육 문화의 변천으로 야기되는 세대간의 갈등 때문에 아직까지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고령자에게 있어서는 정서적 및 신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리라 본다.

또한 단독가구 고령자의 증가로 인한 『친인척방문』, 『시장보기』와 같이 고령자 스스로 근린생활환경을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 고령자일수록 많은 제약을 받게 되리라 사료된다.

고령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문맹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기계화 문명 속에서 후기 고령자의 어려움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가사작업 시 손쉽게 조작이 가능한 가정기기의 개발은 고령자의 주거내 일상생활을 윤택하게 할 것

이며, 특히 근린생활권 내의 대중교통 이용시 고령자를 위한 신호체계가 더불어 개발되어야 하리라 본다.

3) 부업유형

가사원조가 없는 고령자 단독가구의 부업의 형태는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김은숙, 1989), 부업유형에 따른 일상생활행위를 살펴보면 독립형일수록 전체적인 일상생활행위가 어렵다($p < .01$)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대년의 연구(1998)에서 입식작업대가 없는 부업은 29.5%, 급수시설의 미비는 12.6%, 온수미비는 23.1%이고, 김은숙의 연구(1989)에서 단독가구의 부업의 유형 실태를 보면 재래식이 71.6%를 차지하였으며, 김태일의 연구(1998)에서도 부업이 사용하기 불편한 공간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업의 독립형은 부업과 식당 등으로 분리되어서 가사일을 하면서 동시에 『전화결기』, 『독서』, 『다림질』, 『식사하기』, 『가족담소』, 『TV시청』 등의 활동을 방해하는 공간배치로써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고, 『물건수납』은 가사행위 때 '식기 등을 넣었다 뺄 때'에 다소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식기 수납하기에 형태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현 가사행위가 부업에서 단독으로 행하는 행위보다는 복합적으로 여러 행위가 동시에 유발되므로 부업 유형의 '독립형'은 이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 불편함이 야기되므로 부업 유형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4. 가사수행정도

고령자의 신체적 노화 등으로 인해 일상의 주거내 활동에서는 연령에 의한 체력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수행정도와 힘든 정도를 살펴보았다. 가사노동수행정도를 100점을 만점으로 고령자 자신의 자기평가를 한 결과, 평균적으로 65.1점을 주고 있어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가사전담 여성고령자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가사노동수행의 힘든 정도를 5점 Likert식

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사행위를 하기에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었는데, 평균 3.6점으로 대체적으로 힘들어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김은숙의 연구(1989)에서 고령자 독인가구의 68.9%가 불편을 겪고 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간단한 가사활동과 관련된 능력이 약화되어 가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표 4 〉 가사노동수행정도

		N=200
변 인	내 용	N (%)
가사수행 정 도	50점 이하	69 (34.5)
	50점 이상	131 (65.5)
	M	65.1
가사노동 수 행 의 힘든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8 (4.2)
	조금 그렇지 않다	12 (6.3)
	보통이다	59 (30.9)
	그렇다	78 (40.8)
	매우 그렇다	34 (17.8)
	M	3.6

가사수행 힘든정도에 따른 일상생활행위에 대하여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 표 5 〉, 전체에 대해서 $p < .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사노동 행위가 힘들수록 대부분의 일상생활행위를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독서』, 『간단한 운동』, 『목욕』, 『시장보기』, 『다림질』, 『음식만들기』, 『집안청소』, 『설거지』, 『화초 및 채소기르기』행위에서는 높은 유의수준($p < .001$)에서 차이를 보인다.

고령자에게 있어서 가사작업은 행동의 반 이상이 습관화되어 각각에 적응한 고유한 리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현 주거공간의 구조적인 문제 및 설비상의 미흡으로 야기되는 안전상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적극적인 가사행동을 할 가능성을 저하시킨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가사행위의 힘든정도를 경감시킬 수 있는 설비적 측면이나 가사기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겠다.

〈표 5〉 가사수행의 힘든정도에 따른 일상생활행위의 차이검증

변 인	M					F
	1	2	3	4	5	
계단 오르내리기	3.25/	3.50/	3.54/	3.67/	4.03	1.453
독서	4.00/ a	4.42/ a	3.46/ a	4.18/ a	6.50/ b	12.462***
재봉이나 바느질	3.13/	2.83/	3.42/	3.36/	3.71	1.385
간단한 운동	2.75/ a	3.17/ a	3.15/ a	3.85/ a	6.12/ b	17.565***
목욕	2.50/ a	2.92/ a	2.98/ a	3.35/ a	4.21/ b	8.062***
손자녀 돌보기	3.88/	3.50/	3.59/	5.09/	3.94	4.393**
시장 보기	2.63/ a	2.83/ a	2.64/ a	3.45/ a	4.29/ b	11.716***
친인척 집 방문	3.13/ a	2.92/ a	3.03/ a	3.14/ a	3.91/ b	4.220**
세탁	4.88/ a	2.50/ b	3.12/	3.37/	3.79	4.708**
다림질	2.38/	2.58/	3.00/	3.18/	3.88	7.528***
음식 만들기	2.75/ a	2.50/ a	2.95/ a	3.12/ a	4.26/ b	10.256***
빨래널고 걸기	2.63/ a	2.42/ a	3.39/	3.24/	4.18/ b	4.327**
이부자리 정리	2.38/ a	2.42/ a	2.83/	3.17/	3.62/ b	4.198**
가족 담소	1.88/	2.00/	2.68/	2.76/	2.74	1.448
집안청소	2.25/ a	2.17/ a	2.63/ b	3.27/	3.85	9.634***
물건 수납	2.50/	2.83/	2.76/	3.04/	3.34/ b	2.718*
상 차리기	2.25/ a	2.50/ a	3.05/ a	3.00/ a	3.94/ b	4.742**
화장실 가기	2.63/ a	2.00/ b	3.00/ b	2.96/	3.62	3.793**
설거지	2.25/ a	2.33/ a	2.58/ a	3.05/ a	3.76/ b	7.502***
전화걸기	2.75/ a	2.33/ a	2.92/ a	2.85/ a	3.85/ b	3.942**
화초나 채소 기르기	3.50/ a	2.33/ a	2.76/	4.05/	4.29/ b	5.322***
식사하기	2.75/	2.50/	2.64/	2.73/	3.06	.881
친구 만나기	1.88/ a	2.33/ a	2.90/	2.72/	3.21/ b	3.026*
탈의	2.38/ a	2.17/	2.37/	2.83/	2.91/ b	2.982*
몸단장	2.63/	2.50/	2.59/	2.83/	2.74	.428
게임	1.88/ a	2.17/	2.81/	2.62/	2.91/ b	2.842*
TV시청	2.88/	2.17/	2.41/	2.68/	2.94	1.834
잠자기	3.00/	3.00/	2.56/	2.71/	2.38	1.110
전체	2.77/	2.64/	2.92/	3.22/	3.79	10.504***

* 서로 다른 문자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p < .05 **p < .01 ***p < .001

5. 고령자의 기거행위

주거공간에서 고령자의 기거행위의식에 대해 살펴 본 결과〈표 6〉, '거실에 소파를 놓고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다'라는 문항에 '그렇지 않다'가 응답하여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설 때의 다리의 힘이 들을 두려워함을 알 수 있다.

〈표 6〉 공간별 기거행위의식 N(%)

내 용	N(%)	
	그렇지 않다	그렇다
거실에 소파를 놓고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다	152(80.4)	37(19.6)
밥상에서 식사하는 것이 식탁보다 불편하다	98(50.3)	97(49.7)
침대방보다 온돌방이 더 불편하다	181(92.8)	14(7.2)

'밥상에서 식사하는 것이 식탁보다 불편하다'는 '그렇지 않다'가 50.3%로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이나 밥상에서 식사하는 것이 비슷한 비율로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류혜정(1992)의 연구에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일수록 밥상을 선호한다는 결과와, 장상욱(1996)이 조사한 식사와 일상적인 식사준비는 입식율이 매우 높았으며, 장래는 입식을 희망한다는 결과와 종합해 볼 때 식사 행위시 입식이 진행되면서도 고령자들은 습관적으로 좌식 중심의 행위가 유지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독 고령자는 식탁대신에 밥상(좌탁)이 좋아서 선택을 하는지 면적의 제약 때문에 할 수 없이 선택을 하는 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령자의 기거양식에 대한 조사시 한국적인 좌식생활양식을 감안한 공간계획의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침대방보다 온돌방이 더 편하다'는 92.8%가 온돌방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여 고령자는 이불을 사용하는 취침생활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즉, 기거양식에서의 고령자들의 요구는 거실에서는 입식을, 취침에서는 좌식, 식사행위는 좌식

과 입식 모두에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기거양식과 관련된 각 공간별 행위에 대한 세밀한 연구와 더불어 고령자 주거내 공간계획의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6. 일상생활행위의 만족도

주거공간에서의 고령자의 주거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79.5%가 만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만족도에 따른 일상생활행위는 전체적으로 만족하지 않을수록 행위가 어렵다고 나타났다($p < .001$). 특히 『목욕』, 『시장보기』, 『설거지』, 『탈의』, 『잠자기』, 『집안청소』에서 높은 유의수준($p < .001$)으로 차이가 나타났다(표 7).

< 표 7 > 일상생활행위에 따른 만족도

변 인	만족도		변 인	만족도	
	아니오/예			아니오/예	
계단 오르내리기	4.10 3.56	9.005**	집안청소	3.80 2.83	24.814***
독서	4.18 4.34	.173	물건 수납	3.45 2.87	11.347**
재봉이나 바느질	3.58 3.33	1.587	상 차리기	3.73 2.95	10.876**
간단한 운동	3.48 3.97	1.991	화장실 가기	3.18 2.93	1.182
목욕	3.90 3.13	15.926***	설거지	3.70 2.75	23.319***
혼자서 손자녀 돌보기	5.23 3.92	10.399**	전화걸기	3.10 2.91	.564
시장 보기	3.90 3.11	13.461***	화초나 채소 기르기	3.85 3.39	1.491
혼자서 친인척 집 방문	3.65 3.13	6.897**	식사하기	3.05 2.67	3.969*
세탁	3.83 3.20	6.648*	친구 만나기	2.85 2.70	.557
다림질	3.53 3.05	8.728**	탈의	3.10 2.50	12.680***
음식 만들기	3.65 3.13	6.867**	몸단장	2.85 2.70	1.992
빨래 널고 걷기	4.05 3.15	12.166**	게임	2.55 2.61	.117
이부자리 정리	3.48 2.95	6.874**	TV시청	2.42 2.58	.690
가족 담소	2.40 2.63	.943	잠자기	3.33 2.44	24.726***
			전체	3.48 3.05	13.818***

* $p < .05$ ** $p < .01$ *** $p < .001$

김태일의 연구(1998)에서 고령자 주거내에 모든 공간에서 만족도가 낮았으며, 특히 욕실과 침실, 부엌, 계단에 대한 문제점이 크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V. 결 론

본 연구는 주택내에서 고령자의 일상생활행위에 대한 의식을 파악함으로써 안전하고 가능한 한 자립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편리한 주거환경계획의 기초적인 자료를 얻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대구시에 거주 가사전담 여성고령자 20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식 조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거내 일상생활행위를 5점 Likert 측정한 결과, 평균 3.0으로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계단 오르내리기』, 『독서』, 『재봉 및 바느질』, 『간단한 운동하기』, 『목욕』등을 어려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일상생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은 건강상태($p < .001$), 교육수준($p < .001$), 부엌의 유형($p < .01$)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하지 않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엌의 유형이 독립형일수록 일상생활행위가 어려워함을 알 수 있었다.

3) 가사수행정도에 따른 자가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에 65.1점, 가사수행의 힘든정도는 5점 Likert 측정시 3.6점으로 대체적으로 어려워했다. 이에 가사노동 수행의 힘든정도에 따른 일상생활행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 주거공간에서 고령자의 기거행위의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고령자들은 거실에서는 입식을 취침에서는 좌식을 식사행위는 좌식과 입식 모두에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주거공간 내 주거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79.5%가 불만족상태이며, 주거만족도에 따른 일상생활행위는 $p < .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고령자는 주거공간 내의 제반 조건으로 인하여 일상생활행위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공간적 면에서 보면

계단, 조명설비, 욕실, 부엌의 건축설비적 개선이 요구되며, 고령자의 특성측면에서 보면 건강상태와 교육정도가 일상생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실측에 의한 연구가 아니므로 고령자의 일상생활행위와 주공간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깊이 있는 파악을 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동일한 또는 상이한 주거환경에서의 고령자 생활행위 패턴에 대한 연구가 고령자 주택 계획분야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규식(1973) 핵가족화와 노인문제 p. 615~665.
- 고성룡(1990) 노인을 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계획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김대년(1998) 시차계적 접근방법에 의한 노년기 가족의 주거생활역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2) : 35~46.
- 김애련, 한내창(1997) 노인의 여가활동유형과 여가활동이 생애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6) : 275~287.
- 김은숙(1989) 노인 단독가구의 거택보호실태와 개선방향, 대구대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 조재순(1996) 3대 동거 가족의 세대별 침대공유실태와 노인주거에 관한 의식 및 동거 만족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4(2) : 303~314.
- 김태일(1998) 고령자 주택의 설계지침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2) : 23-34.
- 대한주택공사(1987) 3대 가족형 공동주택개발 연구, 건우사, 서울.
- 류혜정(1992) 노인 단독가구의 주거 규범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 박하전(1985) 집합주택에 있어서의 3대 직계 가족의 주생활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 논문.
- 이연숙외(1990), 주거 공간 내에서의 주생활 행위 및 행위간 갈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6(3) : 21-34.
- 안옥희 · 정준현 · 김순경(1998) 주거인간공학, 기문당.
- 이가옥 외(1995) 노인단독가구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오찬옥(1992) 중년층의 선호 경향을 통해 본 노인 주거모델,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조재순 · 신경주 · 광인숙 · 최정신(1995) 미국노인 주거관련연구경향, 대한건축학회지 11(10) : 13~18.
- 장상옥(1996) 아파트 거주자의 기거 양식과 만족도,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차미란(1984) 노인촌의 계획과 설계 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최성재(1992a) 국민의 노후 생활에 대한 전망과 대책에 관한 연구, 1991년도 서울대학교 대학발전기금 학술연구비지원연구과제 결과보고서.
- 최성재(1992b) 노인주택개발과 노인주택정책,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통계청(1995),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인구보건사회연구원(1991) 사회 복지 장기발전계획, p. 89.
- Barrow. G. M(1992) Aging. the Individual and Society (5th ed.). West Publishing Company.
- Golant. S. M(1984). The effect of residential and activity behaviors on old people's environmental experience in B. Altman. W. Powell. & G. woldwill (Eds.). Elderly People and the Environment. NewYork : Plenum.
- John Macsai(1982) Housing, cond edition, NewYork, Johnwiley&Sons, p. 354.
- Johnson. M. K. (1989) Residential satisfaction of the elderly : The effect management .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 Lawton, M, P(1975) "Planning and Managing Housing for the Elderly". John Wiley, New York.